

- **주요 뉴스:** 미국 7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를 기록. 연준 긴축강도 강화 가능성
 -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갈등 확대
 -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대응이 지연되었다는 비판을 부정
 - 인도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대응 위해 기준금리 50bp 인상(5.40%)
- **국제금융시장:**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통화정책 긴축 강화 우려로 위험선호 강화

주가 하락[-0.2%], 달러화 강세[0.9%], 금리 상승[1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금리인상 전망 강화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원유가격이 에너지주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으로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 급반등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6%, 1.6%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단기와 중기물 중심으로 크게 상승
독일도 미국 고용지표 영향으로 큰 폭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303.6원, +1.1원) 0.1% 하락, 한국 CDS 보합

		8/5일	8/4일	전일대비			8/5일	8/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145.2	4,151.9	-0.16%	국채 금리 10y	미국	2.83%	2.69%	14bp
	유럽	435.72	439.06	-0.76%		독일	0.96%	0.80%	16bp
	중국	3,227.0	3,189.0	1.19%	CDS 5y	한국	40bp	41bp	0bp
	일본	28,176	27,932	0.87%		중국	79bp	79bp	0bp
	한국	2,490.8	2,473.1	0.72%	위험 지표	EMBI+	-	435	-
환율	달러지수	106.62	105.69	0.88%		VIX	21.15	21.44	-1.35%
	유로화	1.0183	1.0246	-0.61%		WTI유	89.01	88.54	0.53%
	엔화	135.01	132.89	-1.57%	원자재	구리	355.2	348.2	2.02%
	위안화	6.7619	6.7493	-0.19%		금	1,775.5	1,791.3	-0.88%
	원화	1.2073	1.2160	-0.7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7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를 기록. 연준 긴축강도 강화 가능성

- 7월 비농업 취업자수는 전월대비 53.8만명 증가하며 예상(25만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 실업률은 3.5%,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를 기록하며 각각 예상보다 0.1%p씩 감소
-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대비 0.5% 상승하며 예상치(0.3%)를 웃돌았고, 전년동월대비로도 5.2% 상승하며 예상치(4.9%) 상회
- 취업자 증가에 임금 상승이 가세하는 등 고용지표가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9월 FOMC에서 정책금리 75bp 인상 가능성이 제기
- 최근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강도가 높아지면서 고용시장 둔화를 전망하는 시각이 높았으나, 7월 고용지표를 통해 아직까지 미국 고용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을 확인. 일부에서는 연준이 보다 공격적으로 통화정책을 진행할 여지가 높아졌으며 이를 통해 하드랜딩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갈등 확대

- 중국 외교부, 성명서를 통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하원의장과 직계가족에 대하여 제재 방침을 공표
- 백악관, 중국 외무부 조치 이후 주미 중국 대사를 초치했으며 더 이상 갈등을 확대하지 않도록 당부
-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백악관 초치에 맞서 미국과의 8가지 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 중단된 협력사항은 ▲기후 변화 회의 ▲군 지휘관 대화 ▲국방 실무 회의 ▲해상안전 관련 회의 ▲범죄와의 전쟁 협력 ▲불법 체류자 송환 실무 회담 ▲사법 협력 ▲마약 퇴치 노력 등

■ 인도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대응 위해 기준금리 50bp 인상(5.40%)

- 인도의 6월 소비자물가 급등(7.01%, yoy) 상승하며 중앙은행 목표치(2~6%)를 크게 웃도는 수준. RBI는 5월(40bp), 6월(50bp)에 이어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

■ 루마니아 중앙은행, 높은 물가압력 통제를 위해 정책금리 인상(+75bp, 5.5%)

-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를 기록하는 등 두자릿수 상승률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 또한 연말까지 정책금리가 6.25%까지 상승할 가능성

■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대응이 지연되었다는 비판을 부정

- BoE가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만일 1년전부터 금리를 인상하였다면 경제에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
- 물가상승을 이끈 공급측 충격은 외부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금리인상이 물가를 진정시키는 데에는 보통 2년 가량 소요되며 당분간 물가대응에 통화정책을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휴 필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선부르게 9월 정책금리 50bp 인상 전망하는 것을 경계. BoE는 물가를 통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경제모멘텀이 다소 둔화할 수 있다고 언급

■ 프랑스 정부, 최악의 가뭄에 대처하기 위하여 태스크포스 가동

- 현재 100개 시도에서 식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 가뭄이 2주 가량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8/5 현지시각 기준)

- 미국 6월 소비자신용(\$십억): 40.1, 5월(23.8), 예상치(23.9)
- 독일 6월 산업생산(전월비): 0.4%, 5월(-0.1%), 예상치(-0.3%)

■ 주요 경제 이벤트(8/7~8 현지시각 기준)

- 8/7일 중국 7월 무역수지, 7월 외환보유고
- 8/8일 일본 6월 경상수지, 7월 은행대출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053, E-mail jchwang@kcif.or.kr